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Audrey Hepburn 스타일에 관한 연구

김연숙* · 배수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 생활과학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 트렌드의 하나인 레트로 경향으로 인해 주목 받고있는 1950·60년대의 대표적인 스타일인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 1929~1993)의 스타일을 그녀의 영화의상 (「로마의 휴일 (Roman Holiday, 1953)」, 「사브리나 (Sabrina, 1954)」, 「퍼니 페이스 (Funny Face, 1957)」, 「티파니에서 아침을 (Breakfast at Tiffany's, 1961)」)과 패션계 활동 등을 통하여 고찰해 보고 현대 패션에 재해석되어 나타난 스타일을 분석해 봄으로써 20세기 후반 패션에 미친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1950·60년대에 대표적인 할리우드 여배우라 할 수 있는 헵번은 영화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형성하게 된다. 「로마의 휴일」에서 착용한 면 블라우스와 플레이어 스커트, 숏 컷 헤어스타일, 「사브리나」와 「퍼니 페이스」에서 보여준 폴 오버와 타이트한 바지, 굽 낮은 플랫 슈즈 등은 그녀의 독특한 캐주얼 스타일을 창조해내 실존주의 패션을 선보였다. 또한 디자이너 위베르 드 지방시(Hubert de Givenchy, 1927~)와의 만남으로 인해 헵번은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슬리브리스 블랙 드레스를 착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60년대 영화에서 단순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세련미를 보였고 여기에 스카프와 선글라스 등의 악세서리가 더해져 미니멀한 포멀 스타일이 완성되었다. 이것은 패션의 모던함을 촉진시켰다 할 수 있다. 또한 헵번은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랩라운드 스타일이나 쇠골을 가리는 보트 넥의 상의, 슬림한 몸매를 강조하는 바지 등을 착용한 모습으로 패션계에서 모델활동을 함으로써 영화의상에 의해 형성된 스타일과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후 헵번이 은막을 떠난 뒤에도 헵번의 스타일은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창조되어 나타났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1980년대의 패션은 1950년의 스타일에 대한 재해석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이 시기에 디자이너들에 의해

1980년대의 화려하고 과장적인 트렌드가 반영된 힙번 스타일들이 선보였으나 그 수준은 미비한 것이었다. 본격적으로 레트로 경향이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은 1990년대에는 1950·60년대 스타일의 재현이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힙번 스타일은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해석되어 나타났다. 이 때 우아하면서 지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전체적인 트렌드에 의해 힙번의 미니멀한 포멀 스타일이 악세서리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나타났다. 이러한 복고풍의 유행은 2000년대 컬렉션에까지 이어져 21세기풍으로 힙번의 스타일은 재현되었다. 이 때 단순함과 편안함을 기본으로 하는 패션의 큰 흐름으로 인해 힙번의 캐주얼 스타일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나타났다.

이상의 고찰로 살펴본 힙번 스타일은 1950·60년대를 대표하는 스타일로 정착된 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패션계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각 시대별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빠른 패션 트렌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선가 반드시 다루어지게 될 클래식한 소재로써의 스타와 연예인들의 스타일이 패션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본 논문이 패션에 대한 그들의 바람직한 영향력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